

비평 논문

영웅 없는 『콜레라 시대』

박범순†

Charles E. Rosenberg, *The Cholera Years: The United States in 1831, 1849, and 186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1987. 276 pp.

3월 초 코로나 사태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을 때, 거의 30년 전 대학원 시절에 읽었던 찰스 로젠버그의 『콜레라 시대(The Cholera Years, 1962)』가 떠올랐다. 마침 학회지 편집진으로부터 서평을 부탁받아 책꽂이에서 먼지를 털고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La Peste, 1947)』도 최근 번역본을 사서 읽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의 한 사람으로 전쟁과 같은 현 상황, 거리에 차와 사람이 사라지고 봄학기를 3월 첫 주에 시작하지 못한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자구책이었다.

의학사 분야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콜레라 시대』는 과학사, 미국사 분야에서 널리 읽히는 책이다. 그러나 로젠버그가 이 책의 기반이 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만 해도(1961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위를 받음), 의학사, 과학사는 역사학 분야에서 주변 학문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학과로 설치된 대학도 많지 않았다. 또한, 콜레라가 발생한 도시, 지역, 나라가 많은데, 비교 연구를 하지 않고 뉴욕 사례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았다. 게다가 의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의사, 과학자, 연구 집단이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 즉, 일반 시민, 종교 지도자, 의학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사회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사회사의 방법은 사례가 많지 않았다. 한마디로 학계

† 카이스트, parkb@kaist.edu

에 첫발을 내딛는 역사학도로서는 무모한 시도였다.

로젠버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학문적 전통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설립된 과학사 및 과학철학 대학원 협동과정(얼마 후 과학사 및 과학사회학 학과로 명칭 변경)에 1963년 부임하여 2001년 하버드 대학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약 50여 명의 박사생을 지도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서 질병과 의료의 사회사 방법론을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위대한 과학자나 의학자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환자와 의료 시스템, 사회 정의와 복지 정책, 지식과 권력 등의 주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연구 전통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콜레라 시대』의 구성을 보면 사회사의 방법론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이 책은 1832년, 1849년, 1866년, 뉴욕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콜레라 대유행을 다루고 있다. 각 시점에서 콜레라의 전조, 발생, 유행, 대응, 종결의 사이클을 분석하는데, 먼저 종교계-의료계-정치계로 구성된 사회의 지도층 사이에 존재하는 콜레라의 원인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나 드러난 갈등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실제로 제시되는 기도나 단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 치료와 방역에 활용되는 의료의 수준, 뉴욕주 보건국(Board of Health)과 뉴욕시 위원회의 행정력이 도시 근교-도시 중심, 개신교-가톨릭, 자립농-도시 근로자, 기존 정착민-최근 이민자, 가진 자-가지지 못한 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여러 집단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집행되는지를 서술한다. 다시 말해, 세속화, 도시화, 이민자 증가, 계층 분화와 같은 19세기 미국의 사회 변화 속에서 콜레라라는 질병이 어떻게 구성되고 받아들여지는 보이고자 한 것이다.

“지식의 사회적 구성”과 같은 주장은 지금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거의 상투어처럼 느껴지지만, 『콜레라 시대』 초판이 나온 1962년에는 거의 보기 힘든 문구였고 사실 로젠버그도 책에서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다만, 1987년에 새로 추가한 “후기”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이 주장하려던 바는, “지식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되는 것이며, 너무나도 인간적인 학문 공동체의 컨센서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 즉 ‘참’으로 만들어지는 것”(237)이라고 했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의 정치적 함의는 분명하다. “협상 과정과 협상 당사자들의 선택은 권력과 특권의 더 일반적인 패턴을 반영하고 필연적으로 강화한다”(237)는 점, 즉 지식의 사회적 구성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 지식이 사회에서 가지는 권위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비판적

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그는 암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질병을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의 작동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보면, 그 구성 과정에 작동하는 복잡다단한 정치·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로젠버그는 『콜레라 시대』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을 이렇게 드러내 놓고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3부를 병렬적으로 배치한 데서 그의 의도는 분명히 보인다. 1832년에 의학계에서는 콜레라가 전염병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 천연두나 황열병처럼 개별적인 특정 질병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여러 질병이 섞여서 발생하는 것인지조차 논란거리였다. 애매한 방식으로 “나쁜 공기”가 원인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경험적으로 전염병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잠시라도 도시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콜레라 환자에 대한 것이었다. 비위생적이고 무절제하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슬럼과 같이 허름하고 위생 관리를 할 수 없는 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콜레라에 잘 걸리는 것은 확실했다. 이들을 격리하고 그중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해주어야 할 텐데, 그럴만한 의료 시설도 행정력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선 물질만능주의, 탐욕주의, 무절제한 생활의 확산을 비난하며 콜레라를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대한 신의 처벌로 설명했다. 이처럼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행동에, 사회구조적 요인보다는 도덕적 문제로 콜레라의 원인을 돌리는, 이른바 “취약성 원인주의(doctrine of predisposing causes)”가 “나쁜 공기설”과 함께 콜레라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849년에 들어서도 콜레라의 원인과 전염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교회 목사는 취약한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행동 양식을 문제 삼았고, 의학계에서도 나쁜 공기 원인설을 대안없이 쉽게 버릴 수 없었다. 다만, 죄에 대한 신의 처벌이 일차적인 원인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오물을 치우지 않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차적인 원인도 중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그리고 콜레라가 나쁜 공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기에 무언가 나쁜 성분은 “이동 가능(portable)”하기에 쉽게 확산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도 생겨났다. 따라서 분노를 처리하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하수 처리 시설을 설립하는 위생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866년에 가서는 정확한 통계 수치에 기반해 콜레라가 오염된 식수를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뉴욕시는 광역 보건국(Metropolitan Board of Health)을 설립해 하수 시설과 공기 정화를 점검하여 공동 주택의 위생 상태 개선을 도모했고, 공중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기 시작했다. 1849년 콜레라 유행일 때만 해도 종교계가 주장하여 평일 하루를 전국적인 기도와 단식일로 제정할 일이 있었는데, 1866년에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다. “과학과 종교는 상대방의 빛 속에서 새롭고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반짝인다”(221)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학과 종교 사이의 충돌은 많이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취약성 원인주의”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콜레라는 특별히 위생법칙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고, 더럽고, 무절제하며, 타락한 사람들에게 대한 저주이다”(218). 로젠버그는 1866년의 상황을 “과학의 승리”가 아니라 “공중 보건의 복음”으로 표현했다. 콜레라 사망자 수를 1849년과 비교하여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해서가 아니라 통계를 기반으로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예방과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1866년 당시에는 콜레라가 독성이 있는 물질에 의한 것인지 미생물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1883년 로버트 코흐에 의해 콜레라 균이 발견되고 이러한 세균이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이른바 세균 이론(germ theory of disease)이 정립된 이후에야, 이 의문은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로젠버그의 견지에서는 세균 이론 이전에도 콜레라와 같은 질병을 이해하는 방식은 엄연히 존재했고, 1866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중의 어떤 것은 생물학적 이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매우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제공할 수 있었다.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겠지만, 로젠버그의 『콜레라 시대』가 출판된 1962년에는 과학사에서 고전이 된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도 나왔다. 쿤이 과학 지식의 형성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상대론적 해석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학자들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를 분석하고 지식에 들어 있는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데 쿤의 통찰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로젠버그도 그런 학자 중의 하나였다. 그는 쿤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In this general sense, Thomas Kuhn's work did help mark a new era in

the way we have come to think about formal knowledge in general and science in particular.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have become subjects of debate, research, and criticism, not only in terms of their social and economic impact, an area of accustomed concern to generations of scholars, but in terms of their internal life as well. Nevertheless, **the influence of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an only be understood as part of a broader cultural-political movement that has brought science into the realm of the temporal, the contingent, and the negotiated.** Even more generally, Kuhn's work was part of a movement that made science a formidable component of establishment culture in an era when every aspect of that culture was being subjected to an anti-authoritarian, delegitimizing cultural criticism; it is no accident tha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called cultural studies came into being during this period—and that this newly self-conscious field saw science, like every other area of cultural activity, in its relation to power, class, and gender.¹

쿤이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지식이 과학자 공동체 안에서 구성됨을 주장했다면, 로젠버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도 문화의 일부이기에 다른 문화 활동과 마찬가지로 계층, 인종, 젠더와의 관계 속에서 지식의 형성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콜레라 시대』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 점이었다. 로젠버그는 이 책을 과학의 진보를 통해 질병, 보건, 가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퍼뜨리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과학과 의학의 지식 안에 배태되어있는 권력 관계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쓴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보이는 과학과 의학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은 책이고, 그렇기에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환경 운동, 여성 운동, 반전 운동 등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거센 도전이 있었을 때 유용한 사례 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¹ Charles E. Rosenberg, *No Other Gods: On Science and American Social Thought*,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xi-xii, 굵은 글씨는 필자. 로젠버그는 이 부분을 1990년대 중반 과학자와 인문사회과학자 사이에 벌어진 “과학전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썼다. 그는 이 논쟁의 뿌리에 『과학혁명의 구조』가 있다고 보았다.

* * *

『콜레라 시대』를 역사학의 테두리에서만 평가하면 그 가치를 충분히 음미하기 힘들다. 로젠버그는 연구를 위해 엄청난 양의 자료 조사를 했고, 그중 절반 정도는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글을 분석하는 데 썼다. 해당 연도에 조사한 신문은 지역, 계층, 종교적 성향을 고려해 100가지가 넘었고, 잡지도 구할 수 있는 대로 읽었으며, 의학 잡지, 보고서, 사례집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 그리고 자료가 한두 군데 모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콜레라 사태를 둘러싼 사회의 모습을 균형 있게 그리기 위해 저자가 기울인 노력은 실로 대단하다. 그 결과는 내러티브의 힘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져 새롭고 두려운 질병에 대한 시민의 복잡한 심경을 잘 드러냈고, 전문 지식의 한계, 신뢰의 문제, 불확정성 등도 잘 보여주었다. 책을 읽고 나서, 3부로 이루어진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여운이 남았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도 없고, 권선징악의 요소도 없었다. 뉴욕 시장이 특별히 큰 조망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광역보건국을 지휘하는 의사의 헌신적인 모습이 부각 된 것도 아니었으며, 도덕 개혁을 설파하는 종교 지도자를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인물로 묘사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군상(群像)이 드러났다.

카뮈의 『페스트』에서도 비슷한 내러티브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소설은 1940년대 알제리 해안 도시인 오랑에 페스트가 처음 감지되고 급격히 확산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들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배경으로, 죽음과 이별과 절망이 일상이 되고, 봉쇄된 시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심리적 변화를 그려낸다.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주요 인물들은 등장하지만, 이들은 통상적인 영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페스트 환자를 진단하고 격리 판단을 내리는 의사 리와는 고통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추상”처럼 단조로운 페스트와 대항하는 자신도 무관심으로 가득 찬 ‘추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 “추상”이 “행복”보다 더 강력할 수 있기에 “추상”과 투쟁하기 위해 스스로 “추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한다(그에게 “추상”은 관념화된 상황을 의미한다). 의사의 판정이 나면 환자를 격리소로 옮기는 일을 맡은 시민 보건대원 타루는 페스트와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람으로 나온다. 그는 과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판단을 하는 것이 어

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의사 리외의 자의식을 꼬집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타루는 리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은 신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헌신적인 이유가 뭔가요?”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리외는, “나도 자부심이 있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만큼밖에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몰라요. 지금으로서는 환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라고 대답한다. 대화가 좀더 진행되면서 리외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세계의 질서가 죽음에 의해 규정되는 이상, 신이 침묵하고 있는 하늘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 신을 믿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죽음과 싸우는 것이 어찌면 신에게도 더 좋을지 모른다는 겁니다.”²

여기에 파리의 큰 신문사 기자로 아랍인의 생활 조건을 취재하러 오랑에 왔다가 출지에 발이 묶인 랑베르는 시를 탈출할 공리를 계속 세우면서 리외와 타루가 하는 일이 영웅주의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타루, 당신은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같군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관념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맨눈으로도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관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지긋지긋해요. 나는 영웅주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한 영웅주의는 어렵지도 않고, 또 영웅주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내가 관심있는 건,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죽는 것이예요.”

리외는 신문기자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었다. 리외가 계속 그를 바라보면 부드럽게 말했다.

“인간은 관념이 아녜요, 랑베르.”

랑베르는 침대에서 뛰어내려왔다. 흥분해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사랑을 외면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의 관념, 어설픈 관념에 불과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더이상 사랑할 줄 모르게 된 거죠. 선생님, 단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다립시다. 정말로 그럴 수 없다면, 영웅놀이는 그만두고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기다리자고요. 나는 그 이상은 하지 않겠어요.”

² 알베르 카뮈, 유호식 옮김, 『페스트』 (문학동네, 2015), 151-153.

리외가 갑자기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당신 말이 옳아요, 랑베르. 절대적으로 옳아요.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을 나는 결코 막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하려는 일은 내가 봐도 정당하고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말해주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은 영웅주의와는 아무 상관 없어요. 이건 성실성의 문제예요. 비웃을지 모르지만,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³

의사 리외에게 성실성은 직분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화에서 인간은 관념이 아니라고 했지만, 랑베르의 말처럼 페스트와 싸우고 있는 자신이 관념화(즉, 추상화)된 인간으로 변모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경계하는 모습이 보인다.

* * *

로젠버그의 『콜레라 시대』와 카뮈의 『페스트』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2020년 우리는 놀랍게도 과학과 의학의 한계를 목격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알아냈다. 지난 1월 중국 우한에서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구형에 돌기가 나와 있는 모습을 한 바이러스의 전자 현미경 사진도 널리 퍼졌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 분석 결과도 바로 나왔다. 전 세계 대학, 연구소, 제약 회사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전력 투구를 하고 있으니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사이 여러 나라는 마스크와 진단 장비와 같은 간단한 방역 도구의 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 전염병이 갑자기 유행할 때, 값싸고 간편히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진단, 격리,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공중 보건 조치의 시행이 사람을 목숨을 구하고 있다. 적어도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1866년 뉴욕 시민이 의존했던 것은 콜레라의 사진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콜레라를 전파하는 매개체에 대한 정보였고,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할 환경미화원 확보와 공동주택의 위생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같은 행정력이었다. 소설 『페스트』의 의사 리외가 의존했던 것도 진단을 받은 환자를 옮길 시민 보건대, 이들을 격리할 수 있는 임시 수용소와 같은 것들이었다.

3 위의 책, 193-194.

콜레라, 페스트,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한 사회가, 또는 전 세계가 급작스럽게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소수의 영웅보다는 성실한 다수가 더 필요하다. 로젠버그는 역사 연구를 통해 이를 보였고, 카뮈는 소설가의 상상으로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우리도 여기서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